〔보 문〕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3, No. 8 (1999) p.1149~1160

신체 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 행동과의 상관연구

박 재 경 · 남 윤 자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Relations between Body Cathexis and Clothing Selection by Body Types

Jae-kyung Park · Yun-ja Na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5. 28 접수)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being self-consciousness of one's body size on clothing behavior, we measured body size of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directly and examined by questionnaire the degree of being self-consciousness of their body size, the aspired clothing behavior, and the actual clothing behavior. In addition, after classifying the subjects into groups according to the degree of obesity, we also examined the difference in the actual clothing behavior among the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On the item of girth of the body parts, the subjects felt thicker in the proximal and lower part of the body than in the distal and upper part of the body. And with respect to the style which exposes body silhouette, the disparity between the aspired and actual clothing behavior was greater in the parts that the subjects felt thick.

2) After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spired and the actual clothing behavior, we found out that the style which subjects wanted to put on but actually did not was the style that exposes body silhouette, and the style which subjects didn't want to put on but actually did was the style covers the body silhouette.

3)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consciousness of their body size and their actual clothing behavior. The self-consciousness of body size on actual dressing tend to influence the clothing for lower body more than the other parts.

4)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lean, normal and obes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the frequency of wearing the clothing that expose body silhouette. The obese group had a tendency to avoid this clothing style.

Key words: Self-conciousness of body size, Aspired clothing behavior, Actual clothing behavior, Degree about obesity; 신체크기인식, 희망착의행동, 실제착의행동, 비만정도

※ 이 논문은 1998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선경 학술연구비에 의한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I. 서 론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영상매체에 의한 시각적인 문화가 발달한 시대로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매우 커졌다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 있어서도 외모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외모를 구성하는 요소인 신체적인 특징과 의복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의 젊은 세대들은 영상문화세대로 불려질 만큼 시각적인 문화와 친숙하게 성장하였으므로 이상적인 체형이나 유행하는 의복 등,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20대 여성의 경우 가늘고 긴 체형을 이상적인 체형으로 인식하여, 30대 이상의 연령층보다 가늘고 긴 체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김용숙, 1990 ; 박우미, 1993 ; 구양숙 · 추태귀, 1996 ; 植竹桃子, 1988), 유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유행 수용도도 높다(정찬진 · 김옥진, 1988). 이는 20대의 여성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신의 신체나 의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신체인식과 신체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젊은 여성들이 매우 마른 것을 이상형으로 삼으며, 인지체형과 실제체형 중 인지체형이 신체만족도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김용숙, 1990 ; 박우미, 1993 ; 구양숙 · 추태귀, 1996 ; 植竹桃子, 1988 ; 정재은, 1993 ; 정옥인, 1993 ; 조지숙 · 김경연, 1994 ; 김정숙, 1984 ; Douty · Brannon, 1984 ; Lennon, 1988). 착의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타일을 선호하였고, 덜 만족할수록 체형조절이 가능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며 체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신체자아개념을 극복하고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될 가능성도 시사하였다(植竹桃子, 1988 ; 김정숙, 1984 ; 임숙자, 1986 ; 정삼호 · 강혜원, 1988 ; 박우미 · 고유미, 1994 ; 大矢愛美 · 中川早苗, 1989).

이상과 같이 신체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착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고찰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의복에 대한 만족도나 의복의 맞음새만을 다루고 있어 이보다는 신체와 관련된 특정한 복종이나 디자인, 실루엣 등의 선호, 또는 배제를 확인하는 것이 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과거에는 유행이 한정된 스타일로 존재하여 자신의 신체 의식과 관계없이 유행을 따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로만 분류가 되었으나, 최근에 복종이나 실루엣 면에서 다양한 유행스타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행하는 스타일 중에서 자신의 신체를 고려한 의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가 진행된 시기에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잡지(CéCi ; Figaro ; Let's go, 1998)들에 나타난 유행 경향을 살펴본 결과, 몸에 밀착되는 상의에 여유있는 바지를 입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었고 상하 모두 밀착되거나 여유있는 스타일도 폭 넓게 착용되어졌다. 또한 스커트와 슬랙스의 길이도 다양하였으며, 복종에 있어서도 스커트, 슬랙스, 원피스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행의 다양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은 개인의 의복 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주므로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과 착의행동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착의행동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착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유행이나 개인의 선호취향 등의 영향을 줄이면서 신체크기인식과의 관련을 살펴보기 위해 착의행동에 있어서 실제로 착의하는 행동과 희망하는 착의행동을 함께 고찰하였다. 그리고 주관적인 비만인식과 Röhrer 지수를 이용한 객관적인 비만정도를 분류하여 각각의 비만분류에 따른 착의행동의 차이도 고찰하고자 한다. 신체인식과 관련된 착의행동의 고찰을 통하여 선호 또는 기피 디자인에 대한 체형과의 관련을 파악함으로써 불만인 신체 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착장 방법의 개발이나 디자인의 개발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연구방법

1. 계측항목 및 설문항목

(1) 계측항목

계측항목은 <표 1>과 같다. 이 중에서 하지장은

장골높이와 무릎높이, Röhrer 지수는 키와 몸무게에 의해 계산되었으므로 계측항목은 총 20부위였다.

(2) 설문항목

설문항목은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 평가 20문항,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 동일한 의복형태 20개씩을 사용하여 총 40문항, 전반적인 자신의 신체에 대한 비만/수척 평가 1문항의 총 61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2).

신체에 대한 부위별 크기인식은 <표 1>의 계측항목 중 Röhrer 지수를 제외한 19항목과 목길이 1항목의 총20문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착의행동의 고찰을 위한 의복형태는 연구시기(1998년)에 유행하고 있는 의복형태 중 신체 피부면이나 신체 실루엣이 노출 또는 은폐된 형태를 선택하였다. 또 착의 용도는 신체의 노출이 많으면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여름 평상 외출복으로 한정하고 각각의 의복형태를 대표적인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표 1〉 신체계측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계측항목	평균	표준편차
키	160.78	4.61
목밑둘레	37.44	1.79
가슴둘레	80.33	4.18
허리둘레	64.50	3.88
배둘레	76.73	5.25
엉덩이둘레	90.73	4.44
위팔둘레	25.23	2.35
아래팔둘레	21.41	1.77
손목둘레	14.47	0.75
넓적다리둘레	52.75	3.29
장딴지둘레	33.86	1.99
발목최소둘레	20.39	1.83
등길이	38.26	1.79
엉덩이길이	21.30	2.39
어깨끝점사이길이	39.38	1.91
소매길이	53.80	2.98
하지장	84.57	3.70
어깨경사각	22.57	3.11
몸무게	51.44	4.77
Röhrer Index	1.239	0.113

※ 하지장=(장골높이-무릎높이)×0.93

2. 자료수집

18~26세 여자 대학생 83명을 대상으로 계측과 설문조사를 행하여 1998년 5월~6월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계측은 마틴 인체계측기를 사용하였으며, 인체계측항목의 선정은 KS A 7003을, 계측방법은 KS A 7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PSS/WIN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 착의행동, 집단별 착의행동의 비교 등에 대하여 기초통계와 상관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test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4. 용어의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사용하였다.

(1) 착의행동

◦ 희망착의행동 : 특정한 형태의 의복에 대해 착용하기를 희망하는 정도.

◦ 실제착의행동 : 특정한 형태의 의복을 실제로 착용하는 빈도.

(2) 의복형태 : 의복형태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표 3>과 같다. 의복형태에 대한 정확한 용어가 없는 경우, 신체부위와 관련하여 용어를 정의하였다.

(3) 비만/수척 집단 분류 : 수척, 표준, 비만의 3집

〈표 2〉 계측항목과 설문항목의 개요

조사내용	문 항 수	평 가 방 법
계측항목	20항목	연구자가 직접 계측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20문항	5점척도(1=작다/가늘다, 5=크다/굵다)
희망착의행동	20문항	3점척도(1=입고싶지않다, 3=입고싶다)
실제착의행동	20문항	3점척도(1=전혀입지않는다. 3=자주입는다)
신체비만인식	1문항	3점척도(1=말랐다, 3=뚱뚱하다)

〈표 3〉 의복형태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용 어	의 복 형 태
하이네크상의	하이 네크라인의 상의
데꼴따쥬상의	파임이 큰 네크라인의 상의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팔은 물론 어깨와 가슴상부를 모두 노출한 상의
어깨넓어보이는상의	어깨가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 된 상의
몸통상부밀착상의	몸통상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	몸통상부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상의
슬리브리스상의	팔 전체가 노출된 상의
피티드슬리브상의	팔에 밀착되는 소매의 상의
짧은상의	배부분이 노출될 정도의 짧은 길이의 상의
긴상의	엉덩이가 덮일 정도의 긴 길이의 상의
몸통하부밀착하의	몸통하부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하의
상의안으로넣은하의	상의를 하의의 안으로 넣어 입은 하의
힙본슬랙스	밑위길이가 짧아 엉덩이에 걸쳐 입는 슬랙스
짧은스커트	다리의 노출이 심한 짧은 길이의 스커트
짧은반바지	다리의 노출이 심한 짧은 길이의 반바지
다리밀착무릎슬랙스	다리에 밀착되는 무릎전후 길이의 슬랙스
다리밀착긴슬랙스	다리 전체에 밀착되어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긴 슬랙스
다리여유긴슬랙스	다리 전체에 여유가 많아 헐렁한 긴 슬랙스
긴스커트	발목 전후 길이의 긴 스커트
몸통밀착원피스	몸 전체에 밀착되어 신체 실루엣이 드러나는 원피스

단으로 분류하였다.

• 주관적 비만분류 : 설문지의 신체비만인식 문항의 3점 척도 평가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였다.

• 객관적 비만분류 : Röhrer 지수에 의한 분류는 일반적으로 1.2미만은 수척, 1.2~1.5는 표준, 1.5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분류 기준은 전 연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여대생 집단에 적용할 경우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이 수척/표준집단에 속하게 된다. 젊은 여성의 대부분이 실제체형과 인지체형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동일 연령대의 집단을 비교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령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여 비만을 분류하고, 이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대부분이 20~21세의 여대생이므로

〈표 4〉 일반적인 Röhrer 지수 기준의 비만분류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수척집단	35	42.2	42.2
표준집단	46	55.4	97.6
비만집단	2	2.4	100.0
계	83	100.0	100.0

1997년 국민체위조사의 20~21세 여성의 Röhrer 지수 분포를 기준으로 집단을 분류하였다. 따라서 하위 25%미만에 해당하는 Röhrer 지수 1.16미만을 수척집단, 50%에 속하는 1.16이상 1.34미만을 표준집단, 상위 25%에 속하는 1.34이상을 비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신체부위에 따른 크기인식

(1)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분포의 특성

자신의 신체에 대한 크기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목, 어깨, 몸통, 팔, 다리의 각 부위별 둘레와 길이, 그리고 키와 몸무게에 대하여 실제 계측을 실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주관적인 신체크기인식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은 평균 연령이 20.7세로 18~26세의 연령분포를 가진 여자대학생 집단이었으며 신체계측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신체 각 부위의 크기에 대한 인식의 평균 및 표준

〈표 5〉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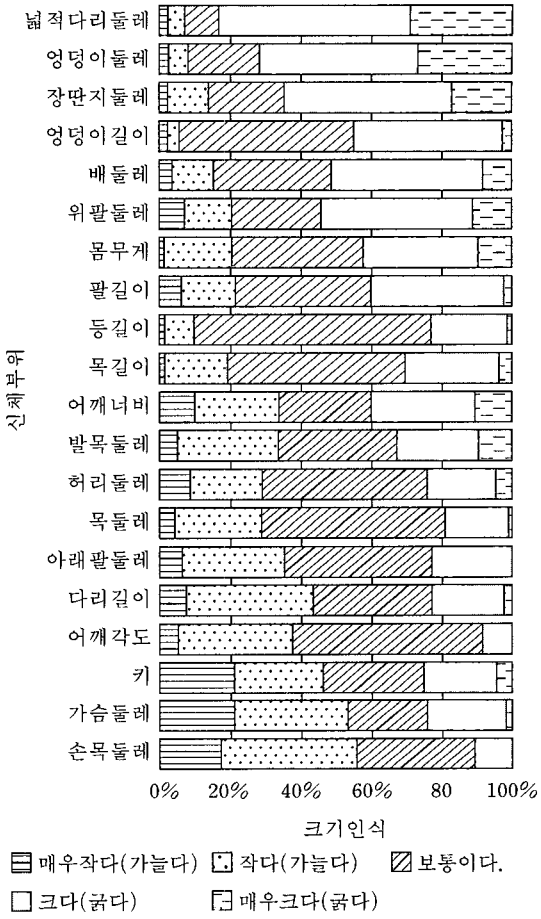
신체부위	평균	최빈값	왜도	첨도	계측치와의 상관계수
키	2.64	3	0.130	−0.905	0.846**
목길이	3.13	3	0.058	0.019	
목둘레	2.88	3	−0.090	0.097	0.341**
가슴둘레	2.53	2	0.217	−0.981	0.567**
허리둘레	2.92	3	−0.078	−0.033	0.618**
배둘레	3.40	4	−0.517	0.110	0.578**
엉덩이둘레	3.87	4	−0.831	0.626	0.590**
위팔둘레	3.37	4	−0.620	−0.221	0.531**
아래팔둘레	2.82	3	−0.234	−0.624	0.503**
손목둘레	2.39	2	0.092	−0.710	0.304**
넓적다리둘레	4.02	4	−1.295	2.262	0.601**
장딴지둘레	3.65	4	−0.530	−0.260	0.465**
발목둘레	3.04	3	0.184	−0.637	0.251*
등길이	3.13	3	−0.091	1.726	0.241*
엉덩이길이	3.41	3	−0.074	−0.229	0.219*
어깨너비	3.07	4	−0.096	−0.873	0.378**
팔길이	3.14	3	−0.579	−0.104	0.651**
다리길이	2.75	2	0.180	−0.533	0.605**
어깨각도	2.66	3	−0.279	0.039	−0.281*
몸무게	3.30	3	0.002	−0.570	0.686**

*p≤0.05 **p≤0.01

편차, 최빈값, 왜도, 첨도는 <표 5>와 같으며 신체부위별로 '가늘다−굵다'의 크기인식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여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을 고찰하였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한 인식에서 평균들은 2.39~4.02에 분포하고 있다. 넓적다리둘레가 4.02로 평균이 가장 높고 엉덩이둘레, 장딴지둘레, 엉덩이길이, 배둘레의 순서로 높은 평균을 보여 하반신의 둘레 항목에 대한 크기인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균이 낮게 나타난 부위는 손목둘레, 가슴둘레, 키, 어깨각도, 다리길이였다.

그러나 신체크기인식에 있어서 인식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부위가 많았기 때문에 평균 외에 최빈값과 왜도, 첨도를 사용하여 부위별 인식분포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왜도는 분포의 편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와 유사한 대칭 모습을 보이고, (+)값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보이고, (−)값은 왼쪽꼬리분포를 보인다. 첨도는 평균값을 중심으로 한 밀도를 나타내는



[그림 1] 신체부위별 크기인식

것으로 절대값이 0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값은 정규분포보다 좁게 밀집되어 뾰족한 분포형태를 보이고, (−)값은 그 반대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그림 1]은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의 분포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첨도, 왜도와 관련된 분포의 특성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최빈값이 4(굵다/넓다)인 신체부위는 넓적다리둘레, 엉덩이둘레, 장딴지둘레, 배둘레, 위팔둘레, 어깨너비이다. 넓적다리둘레는 평균과 최빈값 모두 4이상임과 동시에 왜도가 −1.295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친 왼쪽꼬리분포를, 또 첨도는 2.262로 평균값에 매우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굵다', '매우 굵다'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엉덩이둘레도 넓적다리둘레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장딴지둘레, 배둘레, 위팔둘레는 모두 왜도가 (−)값인 '굵다'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나타내었다. 최빈값이 2(작다/가늘다)인 신체부위는 손목둘레, 가슴둘레, 다리길이이다. 이들 부위는 모두 첨도가 (−)값을 나타내 정규분포보다 넓게 퍼진 분포를 보이며 가슴둘레와 다리길이는 왜도가 0.217, 0.180으로 약간 '가늘다/짧다' 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키, 발목둘레는 왜도가 (+)값으로 '작다/가늘다' 의 인식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등길이는 평균이 3.13, 최빈값이 3, 왜도는 −0.091로 0에 가깝고 첨도는 1.726으로 '보통이다' 의 밀도가 매우 큰 부위로 '보통이다' 라는 인식이 대부분인 신체부위이다.

이상에서 나타나는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의 특징을 살펴보면 몸무게와 엉덩이둘레, 배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위팔둘레 항목에서 '크다/굵다' 의 인식이 강하며 '크다/굵다' 의 밀도가 높아 집중성이 크다. 반면, 키, 가슴둘레, 아래팔둘레, 손목둘레, 발목둘레, 다리길이 항목은 '작다/가늘다' 의 인식이 강하나 '크다/굵다' 의 항목처럼 집중성이 강하지 않고 인식의 분포가 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체보다 하체에서, 말단보다 중심부분에서 둘레항목에 대한 인식이 '크다/굵다' 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 신체계측치의 상관

실제 신체계측치와 신체부위별 크기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크기인식과 신체계측치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는 <표 5>와 같다.

신체크기인식과 계측치의 관계는 어깨각도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0.219~0.846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어깨각도에 대해서는 실제 어깨각도와 상관없이 주관적으로 어깨가 올라갔다거나 쳐졌다는 인식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어깨너비, 목둘레, 손목둘레, 발목둘레, 등길이, 엉덩이길이에서는 0.219~0.378의 낮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등길이에 대한 인식의 대부분이 '보통이다' 인 것처럼 실제신체크기에 대한 이상치나 비교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관심이 적은 부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7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서는 0.465~0.846의 높은 상관을 보여 자신의 신체크기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이상치나 비교 기준이 존재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의복형태에 따른 착의행동

(1) 희망착의행동

의복형태별 희망착의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빈값, 첨도는 <표 6>과 같다.

의복형태별 착의희망여부의 평균은 1.60~2.82에 분포하고 있다. 다리여유긴슬랙스가 2.82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몸통상부밀착상의, 몸통밀착원피스 순서로 평균이 높아 착의하고 싶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평균이 가장 낮은 의복형태는 어깨넓어보이는상의로서 평균이 1.60으로 착의하고 싶지 않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최근의 유행경향에서 약간 벗어난 형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최빈값은 어깨넓어보이는상의의 1점, 긴상의의 2점을 제외한 모든 의복형태에서 3점으로 나타나 18개의 의복형태는 착의하고 싶은 의복형태임을 알 수 있다. 왜도에서도 어깨넓어보이는상의를 제외한 모든 의복형태에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입고싶다' 쪽으로 편중된 분포를 보였다. 특히 첨도가 6.645인 다리여유긴슬랙스와 3.269인 몸통상부밀착상의는 '입고싶다' 에 매우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이 착의를 희망하고 있는 의복형태였다.

(2) 실제착의행동

의복형태별 실제착의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 최빈값, 첨도는 <표 6>과 같다.

의복형태별 실제착의여부의 평균은 1.30~2.59에 분포하고 있다. 다리여유긴슬랙스가 2.59로 가장 높은 평균을 나타내었으며 몸통상부밀착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 순서로 평균이 높아 실제로 착의하는 빈도가 높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반면 짧은반바지,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몸통밀착원피스, 긴스커트, 짧은스커트 등은 평균이 1.30~1.45로 실제착의빈도가 낮은 의복형태로 나타났다.

최빈값은 몸통상부밀착상의와 다리여유긴슬랙스에서 3점, 짧은반바지,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몸통밀착원피스, 긴스커트, 짧은스커트, 다리밀착무릎슬

〈표 6〉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 행동

의복형태	희망착의행동				실제착의행동				희망-실제 착의간의 상관계수
	평균	최빈값	왜도	첨도	평균	최빈값	왜도	첨도	
하이네크상의	2.17	3	−0.313	−1.341	1.88	2	0.069	−0.330	0.444**
데꼴따쥬상의	2.43	3	−0.930	−0.665	1.84	2	0.138	−0.526	0.342**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2.34	3	−0.691	−1.090	1.37	1	0.812	−0.710	0.255*
어깨넓어보이는상의	1.60	1	0.784	−0.714	1.59	2	0.261	−0.835	0.487**
몸통상부밀착상의	2.77	3	−1.981	3.269	2.47	3	−0.333	−1.008	0.136
몸통상부여유상의	2.49	3	−0.977	−0.198	2.37	2	0.250	−1.294	0.167
슬리브리스상의	2.42	3	−0.925	−0.843	1.66	2	0.336	−0.627	0.339**
피티드슬리브상의	2.53	3	−1.152	0.047	2.20	2	0.044	−0.141	0.477**
짧은상의	2.08	3	−0.160	−1.531	1.58	1	0.529	−0.595	0.338**
긴상의	2.19	2	−0.293	−0.945	2.23	2	0.211	−0.119	0.471**
몸통하부밀착하의	2.47	3	−1.065	−0.581	1.94	2	0.059	−0.581	0.406**
상의안으로넣은하의	2.61	3	−1.317	0.732	2.19	2	−0.178	−0.560	0.325**
힙본슬랙스	2.61	3	−1.481	0.906	2.20	2	−0.206	−0.604	0.450**
짧은스커트	2.54	3	−1.270	0.062	1.45	1	0.830	−0.304	0.173
짧은반바지	2.30	3	−0.622	−1.291	1.30	1	1.430	1.128	0.156
다리밀착무릎슬랙스	2.20	3	−0.400	−1.410	1.51	1	0.699	−0.454	0.210
다리밀착긴슬랙스	2.47	3	−1.044	−0.494	1.88	2	0.160	−0.850	0.476**
다리여유긴슬랙스	2.82	3	−2.680	6.645	2.59	3	−0.842	−0.392	0.327**
긴스커트	2.36	3	−0.771	−1.123	1.41	1	1.271	0.541	0.227*
몸통밀착원피스	2.61	3	−1.513	0.897	1.40	1	0.697	−0.911	0.269*

*$p \leq 0.05$ **$p \leq 0.01$

랙스, 짧은상의에서 1점, 나머지 의복형태에서 2점을 나타내었다. 최빈값이 3인 몸통상부밀착상의와 다리여유긴슬랙스에서는 왜도가 −0.333, −0.842로서 '자주입는다' 쪽으로 분포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최빈값이 1인 의복형태에서는 0.529~1.430의 값은 나타내 (+)값을 보임에 따라 '전혀입지않는다' 쪽으로 편중된 분포를 나타내었다. 특히 첨도가 높은 짧은반바지, 긴스커트는 '전혀입지않는다'에 밀집된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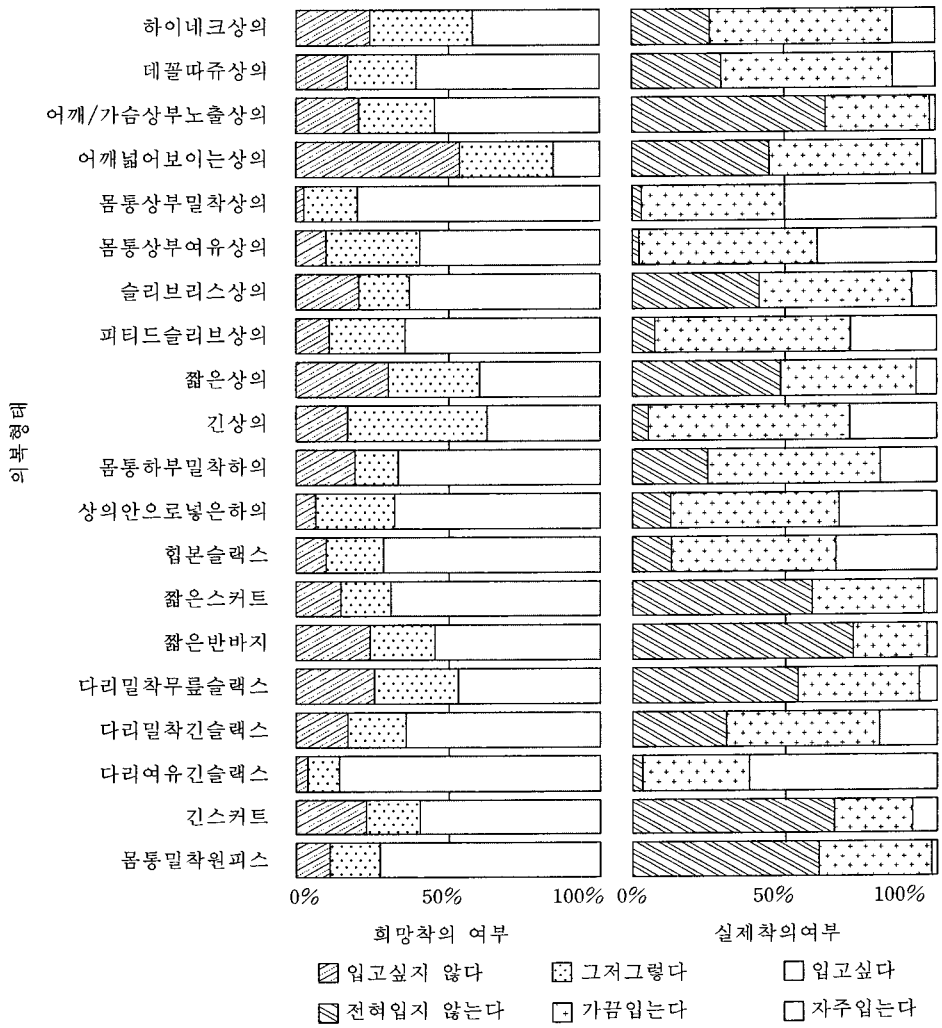
(3)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

의복형태에 따른 착의희망여부와 실제착의여부의 분포는 [그림 2]와 같다.

몸통상부밀착상의와 다리여유긴슬랙스는 착의희망정도와 실제착의정도가 모두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인 꼭 맞는 상의와 헐렁한 슬랙스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반면 짧은반바지, 긴스커트,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몸통밀착원피스, 짧은스커트, 다리밀착무릎슬랙스, 짧은상의는 입고싶으나 실제로는 입지 않는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불일치가 큰 의복형태였다.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 착용하지 않는 의복형태는 주로 신체면의 노출이 큰 형태였다.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상관관계는 <표 6>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는 0.227~0.487의 분포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몸통상부밀착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 짧은반바지, 짧은스커트, 다리밀착무릎슬랙스에서 다른 의복형태 보다 낮은 상관을 보여 착의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착의 여부가 결정되는 의복형태로 해석된다. 이 중에서 몸통상부밀착상의의 경우 신체면/실루엣이 노출되는 다른 의복형태와 달리 실제착의빈도가 컸는데도 상관이 낮았다. 이것은 몸통상부밀착상의가 조사시기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실루엣이 노출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체크기인식에 큰 상



[그림 2]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

관없이 실제착의빈도가 컸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관계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희망착의행동점수에서 실제착의행동점수를 뺀 값을 통하여 착의행동을 고찰하였다.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차에 대해 의복형태별로 평균과 최빈값을 구하여 그 중에서 평균이 0.7이상이고, 최빈값이 1 또는 2인 의복형태를 <표 7>에 나타내었다. −2에서 2까지 5단계의 분포를 갖으며, (+)값은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의하지 못하는 경우, 0은 착의희망여부에 따라 실제착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값은 착의를 희망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착의하게 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

몸통밀착원피스, 짧은스커트, 짧은반바지, 긴스커트,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다리밀착무릎슬랙스, 슬리브리스상의의 경우는 (+)값의 빈도가 크게 나타나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의하지 못하는 의복형태로써 신체면의 노출이 큰 의복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긴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는 (−)값의 빈도가 크게 나타나 착의를 희망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착의하는 의복형태로써 신체의 실루엣을 은폐하는 의복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희망착의행동과 실제착의행동의 관계에 대한 빈도분석

의복형태	(희망착의행동점수-실제착의행동점수)					합계
	-2	-1	0	1	2	
몸통밀착원피스	0(0)	1(1.2)	12(14.5)	38(45.8)	32(38.6)	83(100)
짧은스커트	0(0)	2(2.4)	20(24.1)	29(34.9)	32(38.6)	83(100)
짧은반바지	0(0)	2(2.4)	28(33.7)	21(25.3)	32(38.6)	83(100)
긴스커트	0(0)	3(3.6)	28(33.7)	22(26.5)	30(36.1)	83(100)
어깨/가슴상부노출상의	0(0)	1(1.2)	27(32.5)	29(34.9)	26(31.3)	83(100)
다리밀착무릎슬랙스	0(0)	5(6.0)	35(42.2)	23(27.7)	20(24.1)	83(100)
슬리브리스상의	0(0)	4(4.8)	29(34.9)	33(39.8)	17(20.5)	83(100)
긴상의	0(0)	19(22.9)	48(57.8)	16(19.3)	0(0)	83(100)
몸통상부여유상의	1.(1.2)	17(20.5)	36(43.4)	29(34.9)	0(0)	83(100%)

〈표 8〉 의복형태별 실제착의행동과 신체크기인식의 상관

의복형태	허리 둘레	배둘레	엉덩이 둘 레	다리 길이	넓적다리둘레	장딴지 둘 레	발목 둘레	등길이	엉덩이 길 이	키	몸무게
몸통상부밀착상의						-0.22^{*}					-0.23^{*}
슬리브리스상의			-0.27^{*}		-0.25^{*}			-0.30^{**}	-0.23^{*}		
짧은상의			-0.24^{*}								
긴상의		0.26^{*}									
몸통하부밀착하의			-0.27^{*}	0.37^{**}	-0.29^{**}	-0.23^{*}	-0.28^{**}	-0.25^{*}		0.25^{*}	
힙본슬랙스		-0.22^{*}	-0.25^{*}		-0.22^{*}			-0.22^{*}			
짧은스커트	-0.26^{*}		-0.23^{*}		-0.31^{**}			-0.24^{*}			-0.37^{**}
짧은반바지	-0.27^{*}		-0.24^{*}			-0.23^{*}			-0.27^{*}		-0.27^{*}
다리밀착긴슬랙스			-0.32^{**}		-0.27^{*}		-0.25^{*}				
몸통밀착원피스		-0.26^{*}									

$^{*}p \leq 0.05$ $^{**}p \leq 0.01$

(4) 실제착의행동과 신체크기인식의 상관

의복형태에 따라 실제착의행동과 신체크기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계수는 <표 8>과 같다.

상관계수는 -0.22~0.37의 분포를 보여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몸통하부와 다리의 신체면/실루엣이 노출되는 의복형태와 몸통하부와 다리의 둘레항목에 대한 크기인식간의 상관이 중심을 이루며, 몸통상부밀착상의나 슬리브리스상의의 경우도 상체가 아닌 하체의 신체크기인식과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볼 때, 상하체 둘레항목의 크기인식간의 상관을 추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상관계수가 (-)값을 나타내고 있어 신체부위에 대해 '굵다/크다'의 인식을 가질수록 노출의복형태를 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값을 나타내는 몸통하부밀착하의와 긴상의의 경우 키, 다리길이가 길수록 몸통하부밀착하의를 착용하며, 배둘레가 굵을수록 긴상의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키나 다리길이 등의 길이 항목보다 둘레항목이 더 다양한 의복형태와 상관을 갖는 것은 최근 굽 높은 구두, 키높이 구두, 다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 등 길이에 대한 다양한 보완방법의 출현에 의해 둘레보다 길이에 대한 보완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비만분류별 실제착의행동의 고찰

객관적 비만분류에 의한 집단별로 주관적 비만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분할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9>와 같다. 객관적 수척집단으로 분류되어 비만하지 않다고 판정된 개인에서도 자신의 비

〈표 9〉 주관적 비만분류와 객관적 비만분류에 대한 분할표분석

주관적비만분류 / 객관적비만분류	수척집단	표준집단	비만집단	합계
수척집단	17(70.8%)	5(20.8%)	2(8.3%)	24(28.9%)
표준집단	3(7.5%)	25(62.5%)	12(30.0%)	40(48.2%)
비만집단	0(0%)	3(15.8%)	16(84.2%)	19(22.9%)
합 계	20(24.1%)	33(39.8%)	30(36.1%)	83(100.0%)

〈표 10〉 비만분류별 실제착의행동의 평균 및 F값, Duncan−test결과

의복형태	주관적 비만 분류				객관적 비만분류			
	수척	표준	비만	F값	수척	표준	비만	F값
긴상의					2.13B	2.13A	2.58A	6.15**
몸통하부밀착하의	2.10A	2.09A	1.67B	4.49*	2.13A	2.08A	1.42B	9.51***
상의안으로넣은하의					2.29A	2.30A	1.84B	4.06*
짧은스커트					1.54A	1.53A	1.16B	3.35*

*p≤0.05 **p≤0.01 ***p≤0.001 ※ A, B는 Duncan−test 결과로 A가 B보다 착의빈도가 큼.

만정도가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29.1% 존재하고 있으며, 객관적 표준집단에서는 30.0%가 자신을 비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된 비만정도 이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비만분류별 실제착의행동

주관적, 객관적 비만분류별로 의복형태에 따라 실제착의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test를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주관적 분류에 의한 집단간에서는 실제착의행동의 일정한 패턴을 찾기 힘들었으며, 몸통하부밀착하의에서만 집단간의 유의차가 인지되었다.

Duncan−test결과, 몸통하부밀착하의에서는 수척/표준집단과 비만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비만집단의 경우 평균이 1.67로 가장 낮아 비만집단의 실제 착의빈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객관적 분류에 의한 집단간에서는 실제착의행동이 목과 어깨, 팔 부위와 관련된 의복형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체실루엣 노출 의복형태에서 비만집단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반면 몸통상부여유상의, 긴상의, 다리여유긴슬랙스 같이 신체실루엣 은폐의복형태에서는 비만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몸통하부밀착하의, 상의안으로넣은하의, 짧은스커트와 긴상의에서 집단간 유의차가 인지되었으며 Duncan−test 결과 몸통하부밀착하의, 상의안으로넣은하의, 짧은스커트에서는 비만집단의 평균이 낮았고, 긴상의에서는 높게 나타나 수척/표준집단의 실제착의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주관적 비만분류와 객관적 비만분류의 실제착의행동 비교

주관적 비만분류와 객관적 비만분류 모두에서 목, 어깨, 팔 부위에 관련된 의복형태에서는 집단간 실제착의의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실제착의행동과 신체크기인식의 상관(표8)에서도 목, 어깨, 팔 부위와 실제착의행동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목, 어깨, 팔 부위에 관련된 의복형태에 대한 실제착의행동은 신체크기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신체실루엣이 노출되는 하의의 경우 비만집단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객관적 비만분류에 의한 분류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신체실루엣이 은폐되는 하의의 경우 비만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신체실루엣 노출 하의와 마찬가지로 객관적 비만분류에서 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났다.

집단간 실제착의행동의 유의한 차이도 주관적 비

만분류에서는 몸통하부밀착하의에서만 나타나는데 반해 객관적 비만분류에서는 긴상의, 몸통하부밀착하의, 상의안으로넣은하의, 짧은스커트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집단간의 차이의 경향도 신체실루엣이 노출, 또는 은폐되는 하의에 대하여 비만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에서 상체보다 하체에, 말단보다 중심부 쪽의 둘레항목에서 '굵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표 9>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객관적 비만분류에서 수척집단, 표준집단으로 판정된 개인에서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경향을 종합해 볼 때 여대생 집단은 실제체형에 비해 더 비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 비만분류보다 객관적 비만분류에 의한 비만집단에서 실제착의행동에 대해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신체의 둘레에 대한 인식이 실제착의행동으로 연결될 때는 자신이 인식하는 신체보다 실제 신체의 크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Röhrer 지수의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연령층과의 비교나 확대 해석을 하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부위별 크기인식이 착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신체크기인식과 희망착의행동, 실제착의행동을 고찰하였으며, 비만정도에 의해 집단을 분류하여 집단간 착의행동의 차이도 고찰하였다.

1. 신체부위별 크기에 대한 인식은 상체보다 하체에서, 말단보다 중심부에서 둘레항목에 대해 '굵다'는 인식이 편중되어 있다. 실제 신체계측치와의 상관은 대부분의 둘레 항목과 키, 몸무게에서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이 부위들은 이상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를 비교해보는 관심이 높은 부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착의행동에서는 어깨가넓어보이는의복을 제외한 모든 의복형태에서 착의를 희망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실제착의행동에서는 의복형태에 따라 착의빈도가 상이했다. 가장 보편적인 유행스타일인 다리여유긴슬랙스, 몸통상부밀착상의, 몸통상부여유상의 등의 실제 착의빈도가 다른 의복형태보다 크게 나타났다.

3. 착의를 희망하나 실제로는 착의하지 못하는 의복형태는 실제착의빈도가 낮은 신체실루엣을 노출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착의를 희망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착의하는 의복형태는 신체실루엣을 은폐하는 형태였다.

4. 실제착의행동과 신체크기인식의 상관은 몸통하부와 다리의 신체면/실루엣이 노출되는 의복형태와 몸통하부와 다리의 둘레항목에 대한 크기인식 간에서만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대부분 (−)값을 보여 신체부위에 대해 '굵다/크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노출 의복형태를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값을 보인 긴상의의 경우처럼 '굵다/크다'의 인식이 강할수록 은폐 의복형태를 착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2~4를 통한 착의행동을 종합한 결과, 신체면/실루엣을 노출하는 의복형태에서 신체크기인식에 따른 희망착의와 실제착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착의 여부의 결정시 상체에 관련된 의복형태에서는 신체크기인식과의 상관이 적어 유행이나 개인의 선호취향에 의한 영향이 큰 반면, 하체에 관련된 의복형태에서는 유행이나 선호취향에 비해 신체크기인식이 착의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6. 의복형태에 따른 비만분류별 실제착의행동의 차이를 고찰한 결과 신체실루엣이 노출되는 하의의 경우는 비만집단의 착의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실루엣이 은폐되는 하의의 경우는 착의빈도가 높게 나타나 수척/표준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목, 어깨, 팔 부위에 관련된 의복형태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주관적 비만분류보다 객관적 비만분류에 의해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신체둘레에 대한 인식이 실제착의행동으로 연결될 때 자신이 인식하는 신체보다는 실제 신체의 크기를 더 고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Röhrer 지수의 일반적인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연령층과의 비교나 확대 해석을 하는데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상에서 의복형태에 따라 착의를 희망하는 것과 실제로 착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체면/실루엣이 노출되는 의복형태는 신체크기에 대한 인식이 실제착의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하체실루엣이 노출되는 디자인 개발시 체형에 따라 그레이딩을 달리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타겟집단에 따라 신체크기인식이나 의복의 실제착의여부 및 착의시 만족도를 조사하고, 신체의 실제크기에 따른 그레이딩 편차 외에 감성에 의한 그레이딩 편차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구양숙 · 추태귀(1996), 인구 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관여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9

김용숙(1990), 전북지역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만족도와 유행지향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4), 177—189.

김정숙(1984), 여대생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 디자인 선호간의 상관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미(1993), 우리 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63—180.

박우미 · 고유미(1994),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착의행동과의 관계연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광주대 민족문화예술 연구소 논문집, 3, 105—124.

임숙자(1986),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2), 37—50.

정삼호 · 강혜원(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 —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가정문화논의, 2, 61—82.

정옥인(1993), 개인적 인식에 의한 인지 체형과 실제 체형과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153.

정재은(1993), 20대 여성의 실제 체형과 이상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찬진 · 김옥진(1988), 의복의 유행스타일 수용과 선택기준 및 유행 정보원의 활용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2**(3), 351—361.

조지숙 · 김경연(1994),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및 신체상왜곡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부산대 가정대학 연구보고 20집, 15—23.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7),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표준체위 조사 보고서, 국립기술품질원.

Douty, H.I., & Brannon, E.L.(1984), Figure Attractiveness :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Lennon, S.J.(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植竹桃子(1988), 衣服設計の立場からみた肥り癖せの意識, 日本家政學會誌, **39**(7), 711—723.

大矢愛美 · 中川早苗(1989),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係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11) : 574—581.